

2014년 12월 1일 새벽정리요약말씀

(예수님사진.선생님께서는 연한 하늘색 양복과 코발트빛블루 야자수넥타이를 메고 멋지신 모습으로 단상에 서계십니다.)

오늘은 월요 단상입니다.

어제 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해주리라.”입니다.

반드시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둘이 하나 되라고 했는데 하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생도 하고 그랬습니다. 둘이 하나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지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극과 극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되 동쪽 서쪽으로 각각 구하지 않고, 둘이 하나 되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동물도 싸우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사람도 싸우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크다! 천국이니까. 천국은 하나다.”
지옥은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옥에 가면 만 명이 있으면 만 명의 생각이 다 각각입니다. 전부 각각 놓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면 천국이 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된 것이 그렇게 좋다!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끼리도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곳에 내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되는 곳에는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마음에 든다. 너무 좋다.”
그러나 하나가 안 되는 곳은 너무 내가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금주 말씀을 갖고 금주는 반드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형제들과 하나 되고, 너희들끼리 서로 하나 되는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 되도록 하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하나 되도록 하라. 하나 되면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다. 하나 되어라. 하나 된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 된 곳에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자꾸 대화도 하고, 애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 그런 곳에 주님이 옆에 가 계십니다.

서로 하나 되지 않은 곳은 주님이 옆에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와 동행’을 써 붙여놓고 있어도 “나는 너와 동행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곳에는 내가 강림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된 곳을 알겠지요?

“너희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도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 날부터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고, 마귀 아들은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와 같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지,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자기들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안 합니다. 주를 끼워 주지 않는데 왜 거기에 갑니까? 내 이름으로 모여야!! 그런데 그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내 이름으로 모여야, 주 이름으로 모여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야 함께하겠다. 무슨 이름으로 모이느냐? 불고기 먹기 위해서 모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내 자리 만들어 놓았느냐?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줄래?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거기에 가서 하지.”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갑니까? 바쁘신 하나님이, 바쁘신 주님이 거기에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분위기 만들어놓고, 내 이름으로 모여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래? 그러면 내가 같이 말하리라.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던지 하늘을 모시고 섬기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 때뿐만 아니라, 늘 평소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늘 하나 된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서로 하나 된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너희들끼리 서로 하나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했는데,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알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잘되고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면 분위기가 좋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하면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이 있느냐? 다 되지.” 할 것입니다.

평강과 의로 채워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너희들이 서로 하나 되고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항상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역사하심과 내재하심과 모성신의 은혜와 사랑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손을 딱 잡고 늘 이끌어 주시고, 나도 이들 손을 딱 잡고 계속 이끌어 줄 테니까 그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 화평케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리니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안 될 것이 없다.” 했습니다. 다 그렇게 되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삼

위의 능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씀 마쳤습니다.